

ELLE

CULTURE

9 월 아트 위크 전시 안내서

미술계가 총출동하는 아트 위크. 지금 누가, 어디서, 어떻게 예술을 일으키고 있을까?

by 윤정훈 2025.08.30



‘Untitled (Sebastien)’ (2006).

“지미 로버트 <Éclipser>, 바라캇 컨템포러리”

오다인(바라캇 컨템포러리 큐레이터)

왜 지금, 이 작가

지미 로버트(Jimmy Robert)는 사진, 영상, 텍스트, 조각, 퍼포먼스 등을 넘나들며 ‘보는 방식’과 그 안에 숨겨진 권력 구조에 질문을 던진다. 그에게 몸은 핵심 도구이자 메시지로, 직접 퍼포먼스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가 사진이나 오브제로 등장한다. 또 쉽게 변하는 종이 같은 재료를 통해 ‘우리가 보는 것이 누군가와 무엇을 제대로 보여주는지’ 질문한다.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과 대중 매체 속에서 소외된 존재를 사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.

Credit

- 에디터 이경진 · 윤정훈
- 아트 디자이너 정혜림
- 디지털 디자이너 오주영
- COURTESY OF ARTISTS AND GALLERIES